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하편 ◀

5. 매체와 설득

- (1)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 (23문제)-----1쪽
- (2)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20문제)-----15쪽

6. 한국 문학의 이해

- (1) 가시리 / 진달래꽃 (44문제)----- 28쪽
- (2) 상춘곡 / 울타리 밖 (51문제)----- 52쪽
- (3) 춘향전 (54문제)----- 77쪽

7. 생각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

- (1)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21문제)----- 109쪽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 (1) 국어의 변화와 발전 (61문제)----- 124쪽
- (2)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동 (60문제)----- 145쪽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 (1) 토론과 논증 (2) 협상과 갈등 해결 (26문제)----- 167쪽

10. 문학과 삶

- (1) 광야 / 신의 방 (52문제)----- 187쪽
-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56문제)----- 211쪽
- (3) 오해 (26문제)----- 252쪽

◆빠른 전체 정답 -----269쪽

◆해설 -----273쪽

교재 버전: 2021.06.20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동” 문법 정리

Ⅰ 문법 요소

- ① 개념: 언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
- ② 종류: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등이 문법 요소에 해당함.

Ⅱ 높임 표현

- ① 개념: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

상대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상대에 대해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 문장 종결형에 따른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됨. 			
	<table border="1"> <tr> <td>격식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함. • ‘하십시오체’,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td> </tr> <tr> <td>비격식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 필요 없거나 친근한 사이에서 흔히 사용함. • ‘해요체’, ‘해체’ </td> </tr> </table>	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함. • ‘하십시오체’,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비격식체
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함. • ‘하십시오체’,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비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 필요 없거나 친근한 사이에서 흔히 사용함. • ‘해요체’, ‘해체’ 			
주제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에 의해 실현됨. •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예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십니다. 			
객체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객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등의 특수한 어휘에 의해 실현됨. •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나타냄. 예 누나는 그 책을 어머니께 드렸다. 			

Ⅲ 시간 표현

- ① 개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에 대한 개념이 문법적 범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는 이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의 앞뒤를 제한하는 문법 범주

과거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 ‘-더-’에 의해 실현됨. 예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 관형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던’이 쓰임.
현재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 동사의 경우 선어말어미 ‘-는-/-ㄴ-’에 의해 실현됨. •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냄. •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으)ㄴ’이 쓰임. 예 나는 지금 집에 간다.
미래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되며 ‘-(으)ㄹ 것이-’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예 내일까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임.

*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실현하고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

㉔ 피동 표현

- ① 피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남의 행동에 의해서 하는 동작
 예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 주어의 피동성 강조)
- ② 능동: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동작주가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 주어의 능동성 강조)

■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 ①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만들.
- ② '-아/-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만들.
- ③ 일부 명사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㉕ 인용 표현

직접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 • 인용하는 말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라고'를 덧붙임.
간접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다음, 조사 '라고'를 붙임.

☞ 참고 자료 이중 피동

피동문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거나 '-아/-어지다', '-게 되다' 등이 붙어 표현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국어의 바른 문장 표현이 아니므로, 이중 피동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문이 열려져 있어 모기가 들어왔다.(×) → 문이 열려 있어 모기가 들어왔다.(○)
 이 기계는 공장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 이 기계는 공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 참고 자료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

- ①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표현하고자 함.
 예 일년 새 문화재 10% 훼손돼.
- ② 자신의 행위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
 예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 ③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신문, 뉴스, 법조문, 경고문, 안내문 등)
 예 당분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자료 인용 표현과 관련된 문장 부호 -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 큰따옴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한 부분임을 나타낼 때나 인용한 말이 혼잣말인 경우 큰따옴표를 쓴다. 예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작은따옴표: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작은따옴표를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예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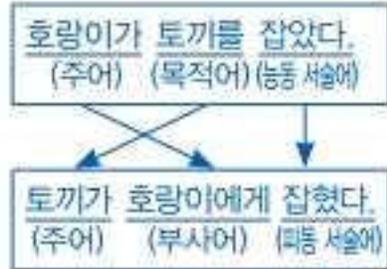
미래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절에서의 미래 시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공히 '-(으)ㄹ'에 의해 표현된다.

- 가. 경아는 미래에 내 아내가 될 여자이다.
- 나. 경아는 화장을 하면 예쁜 얼굴이다.
- 다. 경아는 미래에 내 아내일 여자이다.

(가~다)는 모두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였다. 형용사에는 원칙적으로 미래 시제 어미가 붙기 어려우나 (나)와 같이 조건절이 쓰이거나 양보절이 쓰이는 경우 의미에 맞게 미래 시제가 쓰일 수 있다. (다)에서는 '미래에'가 조건절 역할을 하고 있다.
 -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5.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 능동문의 목적어 → 주어
- 능동문의 주어 → 부사어
- 능동문의 서술어(능동사) → 피동사



'하다'를 사용한 직접 인용 표현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 조사 없이 인용하는 문장 뒤에 동사 '하다'를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예 보초는 "손들어!" 하고 크게 외쳤다.

참고 자료 사동 표현

- 주동과 사동: 주어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을 주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 표현 방법
 - ① 사동 접미사 '-아-', '-하-', '-라-', '-가-', '-우-', '-구-', '-추-'의 사용
 - ㉠ 꿈이다. 넓히다. 열리다. 남기다. 비운다. 일군다. 늦추다
 - ㉡ 동사에 '-게 하다'를 붙여서 표현
 - ㉢ 약을 먹게 하다.

높임법을 실현하는 특수한 어휘

주체 높임법에서의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 직접 높임: 화자가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표현
 - ㉠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신다.
- 간접 높임: 화자가 주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
 - ㉡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 → 계시다 • 죽다 → 돌아가다 • 주다 → 드리다 • 보다 → 뵈다 • 데리다 → 모시다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 진지 • 생일 → 생신 • 술 → 약주 • 나이 → 연세, 춘추 • 병 → 병환 • 집 → 덕 • 이름 → 성함, 함자 • 말 → 말씀 • 이 → 치아

그라친 학습 활동

확인 1 이를 고려하여 높임법에 맞게 말해 보자.

- (1) “어제 숙제를 못 했어.” → (선생님께) 어제 숙제를 못 했어요. / 못 했습니다
- (2) “여기에서 내려라.”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기에서 내리세요. / 내리십시오
- (3) “어디 가니?” → (직장 상사에게) 어디 가세요? / 가십니까?
- (4) “물 좀 주세요.” → (친한 친구에게) 물 좀 줘.

확인 2 다음과 같이 문장 안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그 대상을 고려하여 높임법에 맞게 문장을 고쳐 써 보자.

㉠ 부모님이 공연을 보러 갔다. → 부모님께서 공연을 보러 가셨다.

- (1)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 → 선생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
- (2) 준희가 아저씨에게 안부를 묻는다. → 준희가 아저씨께 안부를 여쭙는다.
- (3) 명규가 할아버지를 데리러 간다. → 명규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간다.

확인 3 다음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를 써 보자.

- (1) 벌써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 과거 시제
- (2) 저기 웃는 아이가 수진이다. →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한 현재 시제
- (3)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한 미래 시제
- (4) 그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다. →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한 과거 시제

확인 4 다음 각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써 보자.

- (1) 아빠가 아기를 안았다. → 아기가 아빠에게 안겼다.
- (2) 체육 대회를 다음 달로 미루었다. → 체육 대회가 다음 달로 미루어졌다.
- (3) 바람이 퇴적층을 형성했다. → 퇴적층이 (바람에 의해) 형성되었다.

확인 5 다음 각 문장에서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으로,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 (1) 그가 “잘 다녀왔니?”라고 말했다.
→ 그가 잘 다녀왔느냐고 말했다.
- (2) 준호는 은진이에게 어서 오라고 말했다.
→ 준호는 “은진아, 어서와.”라고 말했다. / 준호는 은진이에게 “어서 와.”라고 말했다.
- (3) 윤주는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재미있냐고 물어보았다.
→ 윤주는 내게 “내가 읽고 있는 책 재미있어?”라고 물어보았다

1 ● 문법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틀임에 답해 보자.

(1)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모두 찾아 ✓ 표시해 보자.

- ㉠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상대 주체 ✓ 객체
- ㉡ 선생님, 책을 상자에 넣었어요. 상대 ✓ 주체 객체
- ㉢ 아버지, 진지 드세요. 상대 ✓ 주체 객체
- ㉣ 이 책 아주머니께 드려라. 상대 주체 객체 ✓

(2) 다음 문장에서 시간 표현을 찾고,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 어제 청소한 사람은 준혁이었고, 지금 청소하는 사람은 수범이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 지난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나중에 그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풀이 ㉠ 앞 절은 시간 부사어 '어제'가 쓰이고, '청소한'과 '이었고'에 과거임을 나타내는 어미 '-ㄴ'과 '-었-'이 사용되어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 뒤 절은 시간 부사어 '지금'이 쓰이고, '청소하는'과 '이다'에 현재임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 서술격 조사와 기본형이 사용되어 현재 시제를 드러낸다.

㉡ 앞 절은 시간 부사어 '지난주에'가 쓰이고, '있었던'에 과거임을 나타내는 어미 '-었-'과 '-던'이 사용되어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 뒤 절은 시간 부사어 '나중에'가 쓰이고, 미래임을 나타내는 표현 '-ㄹ 것이다'가 사용되어 미래 시제를 드러낸다.

(3) 다음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찾고, 피동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 동사 '팔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된 '팔린다'가 사용되었다.

㉡ 이번 폭우로 땅에 웅덩이가 파였다.

→ 동사 '파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파였다'가 사용되었다.

㉢ 상자를 묶은 끈이 끊어졌다.

→ 동사 '끊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된 '끊어졌다'가 사용되었다.

(3) 다음 신문 기사에서 잘못 쓰인 인용 표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세계 권투 대회의 챔피언 알리가 1964년에 상대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했던 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말이다. 그를 세계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링 밖에서의 싸움이었다. 흑백 분리와 인종 차별이 여전한 1960년, 알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나는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없는 상점들이 있다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 《경향신문》 (2016. 6. 5.)

•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라고) 했던 말

• 나는(→ 자신은)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없는 상점들이 있다라고(→ 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1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잘못 쓰는 높임 표현들이다. 잘못된 표현을 높임법에 맞게 고치고, 문장이 어색한 까닭을 말해 보자.

<p>㉠</p>  <p>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p> <p>↓</p> <p>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p>	<p>㉡</p>  <p>강아지가 참 귀여우시네요.</p> <p>↓</p> <p>강아지가 참 귀엽네요.</p>	<p>㉢</p>  <p>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p> <p>↓</p> <p>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p>
<p>㉣</p>  <p>선생님이 너 교실로 오시래.</p> <p>↓</p> <p>선생님께서 너 교실로 오라셔(오라고 하셔).</p>	<p>㉤</p>  <p>어머니가 내 시간을 여쭙어 보셨어요.</p> <p>↓</p> <p>어머니께서 제 시간을 물어보셨어요.</p>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 (1) ㉠ 나는 수지와 친했다.
 ㉡ 나는 수지와 친했었다.

㉠ 과 ㉡ 은 모두 과거를 나타내지만, ㉡ 은 ㉠ 과 달리 지금은 더 이상 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았었-/-었었-’은 현재와는 단절된 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미로, ㉠ 보다 더 먼 과거의 사건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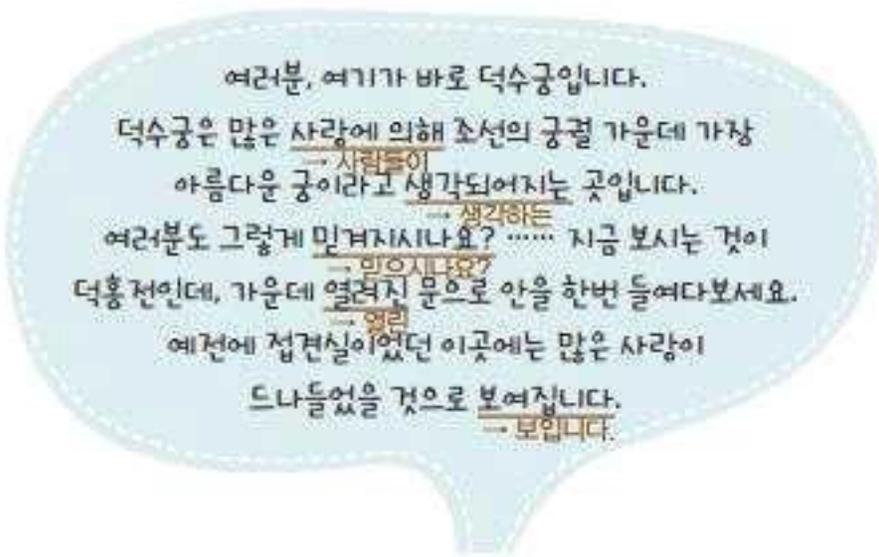
- (2) ㉠ 너 정말 좋았겠다.
 ㉡ 그 일은 내가 맡겠다.

㉠ 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 은 의지를 드러낸다.

- (3) ㉠ 지난달에 둘째 동생이 태어났다.
 ㉡ 이렇게 비가 안 오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 은 과거의 사건임을 나타내는 반면, ㉡ 은 미래에 일어날 명백한 사실을 드러낸다.

3 다음 글에서 잘못된 피동 표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고,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많이 쓰는 까닭이 무엇인지 짚고 이야기해 보자.



잘못된 표현을 많이 쓰는 까닭

- '~에 의해 ~되다/되어지다'와 같은 영어식 번역 투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 피동사에 다시 '-아/-어지다'를 붙인 이중 피동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남에게 자신을 낮추어 공손하게 표현하는 우리의 담화 관습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객관화하고 그 책임을 외부 요인에 전가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생각되어지다'는 '-되다'(접사)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또한 '~에 의해 생각되다'는 영어 번역투의 표현인데 문맥상 '-하다' 형태의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굳이 피동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믿겨지다', '열려지다', '보여지다'는 모두 피동 접사가 붙은 피동사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4 다음 글의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어 쓰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고 이야기해 보자.

맨 처음 그녀에게 안팎 범절과 행실을 가르치고 다스린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본디 사람 보는 눈이 달랐던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 대뜸 싸수가 있겠다고 판단해 나이부터 물었다고 했다.

“그래, 너는 몇 살이나 되었느냐?”

그러자 그녀는 어림성 없이 아는 대로 대꾸했다.

“지 어미가 그러는디, 작년까지는 겨우 여섯 살이었대유. 그런데 시방은 잘 모르겠유.”

“늬가 늬 나이를 모른다 허느냐?”

“예, 워편 이는 하나 늘어서 일곱 살이라구 허던디, 또 누구는 하나 먹었응께 다섯 살이라구 허거던유.”

- 이문구, <일락서산>에서

↓

…… 본디 사람 보는 눈이 있던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대뜸 싸수가 있겠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몇 살이나 되었냐고 나이부터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그녀의 엄마가 작년까지는 여섯 살이라고 알려 주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어림성 없이 대꾸했다. 할아버지는 왜 자기 나이를 잘 모른다고 하는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녀가 한 살 더 늘어서 일곱 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한 살 더 먹었으니 다섯 살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 직접 인용문은 등장인물의 말투가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높임법이나 사투리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상의 특징들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발화 상황이나 어감이 생생하게 드러나며, 인물들의 성격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간접 인용은 서술자가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말 자체의 생동감이나 현장감은 덜해진다. 말의 내용이 객관화되어 좀 더 격식 있게 느껴진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 ①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격식 있는 문체가 된다.
- ②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③ ‘철수가 만든 장난감을 강아지가 부수어 버렸다.’에서 ‘만든’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④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 ⑤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2. 잘못된 표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대.
- ②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③ 내가 상을 탔다니 믿겨지지 않아.
- ④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어요.
- ⑤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바탕으로 능동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한 것이다. 올바르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김기자 :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구 ○○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①**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이 중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복과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복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 가량 올랐으며, 운동화는 9%, 가방은 6.5%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③**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①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② ②를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로 바꾸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 ③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 ④ ④는 내용의 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 ⑤ ⑤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전대신등학교 (대전)

4. 다음 중 동작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상 :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 ② 진행상 : 지금쯤 고구마가 잘 익어 있겠다
- ③ 진행상 : 기차가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 ④ 완료상 : 영우가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완료상 : 승주는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아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주무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여쭙다)
 ㉢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예 사장님)
 ㉣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예 댁)

- ① ㉠, ㉣이 모두 쓰인 문장 : 아버님께서 아직 음식을 드신다.
- ②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어머니를 설득하여 치아를 교정해 드렸다.
- ③ ㉡, ㉣이 모두 쓰인 문장 : 동생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직접 찾아뵈었다.
- ④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언니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쭙어 보았다.
- ⑤ ㉢, ㉣이 모두 쓰인 문장 : 나는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기억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우리는 내일 프랑스 여행을 간다.
 ㉡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다.
 ㉢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① ㉠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 ② ㉡ : '-었었-'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 '-었-'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 : '-었-'은 발화사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 '-더-'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아버지 : 지수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구나.
 지수 : 네, 바자회에 기부할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아버지 : 잘 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은 어디 있지?
 지수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아버지 : 그렇구나.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지수 : 네,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바자회에 ㉤갈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ㄴ'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토론과 협상” 말의 힘

1 토론에서 하는 발언의 종류와 성격

입론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
반론	상대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정확함, 부적절함, 이유와 근거의 비연관성 등을 지적하는 말하기
교차 신문	상대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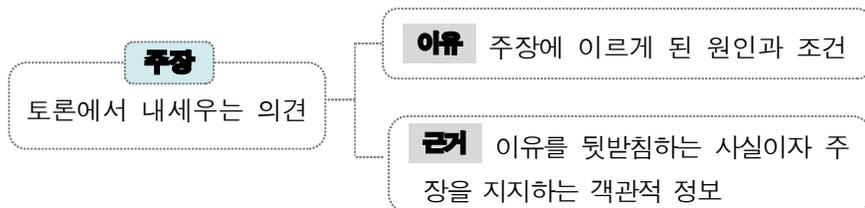
2 논제(토론의 주제)의 특징과 종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야 한다.’ 또는 ‘~이다.’처럼 긍정적 진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논제에 쓰인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하여 쟁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함.
논제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실 논제 : 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논제 ② 가치 논제 :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 ③ 정책 논제 :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관한 논제

■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문제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 시급성, 상황의 지속성 등에 관한 쟁점
해결 방안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쟁점
효과와 이익	해결 방안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에 관한 쟁점

3 논증의 구성: 명확한 주장 + 타당한 이유와 근거



4 반대 심문식 토론: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교차 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토론

■ 2명 대 2명 토론 시 진행 순서

① 제1 찬성자 입론 - ② 제2 반대자 교차 신문 / ③ 제1 반대자 입론 - ④ 제1 찬성자 교차 신문 / ⑤ 제2 찬성자 입론 - ⑥ 제1 반대자 교차 신문 / ⑦ 제2 반대자 입론 - ⑧ 제2 찬성자 교차 신문 / ⑨ 제1 반대자 반론 - ⑩ 제1 찬성자 반론 - ⑪ 제2 반대자 반론 - ⑫ 제2 찬성자 반론 / ⑬ 배심원의 평결

■ 입론의 전개 순서

- ① 논제의 사회적 배경, 토론의 필요성 등을 말한다.
- ② 토론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 ③ 쟁점을 3~4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 쟁점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 ④ 자신의 주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효과와 이익이 있음을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제제 정리

갈등	토론 전사문(토론을 옮긴 글)	성격	논리적, 비판적
제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주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토론의 구성

입론	1 [찬성 1] ①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②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있다.	3 [반대 1] ①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②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크다. ③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교차 심문	2 [반대 2] • 모든 동물 실험이 인간만을 위한 것인가? • 대체 실험이 지금 당장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가? • 대체 실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동물 실험은 여전히 필요한 것 아닌가?
		4 [찬성 1] • 동물에게는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 현 규정이 동물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를 완전히 예방한다고 생각하는가? • 동물 실험의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 1~4는 토론 순서를 가리킴.

참고 자료 입론의 논증 구성 방법

- ① 논제의 사회적 배경, 역사, 토론의 필요성 등을 말함.
- ② 토론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힘.
- ③ 논점을 3~4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 논점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밝힘.
- ④ 자신의 주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익이 있음을 언급하며 마무리함.

참고 자료 진행 방식에 따른 토론의 유형

고전적 토론	찬성 측 두 명, 반대 측 두 명이 각각 한 팀이 되어 입론, 반론, 평결 순서로 진행되는 토론. 토론자는 한 번씩 입론과 반론 기회를 갖게 되어 여덟 번의 순서로 진행된다.
반대 신문식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교차 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 고전적 토론의 입론 단계에 교차 신문을 추가한 것이다.
칼 포퍼(Karl Popper)식 토론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각각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반론을 하며,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매 발언 때마다 질문을 하는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진행 과정

▲ 번호 1~4는 토론 순서를 가리킴.

- 입론: 양측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 교차 신문: 상대측이 사용한 용어의 개념과 근거 등에 대해 질문을 던져 상대측 입론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 반론: 상대측이 입론에서 제기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반박하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최종 발언을 한다.
- 평결: 배심원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측이 토론을 잘하였는지 평가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 반대 신문식 토론의 특징

- 교차 조사 방식 토론, 혹은 세다(CEDA) 방식 토론이라고 함.
- 고전적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추가한 것으로, 질문에 해당하는 교차 신문이 특징적임.
-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되며, 토론자 한 사람당 세 번(입론, 교차 신문, 반론)의 발언 기회를 가져 총 열두 차례의 발언으로 진행됨.

■ 입증 책임과 반증 책임



모의심 박람회

1 이 토론의 입론과 교차 신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한 주장을 다음 표에 적어 보자.

	반대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안 된다.
①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②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③ 동물 실험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물 실험에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	①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②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 ③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1)에서 정리한 주장이 각각 어느 필수 쟁점에 해당하는지 다음 표에 적어 보자.

필수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문제	①, ②	①
해결 방안	③	③
효과와 이익	③	③

(3) 찬성 측과 반대 측 가운데 어느 쪽이 교차 신문에서 질문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뽑고, 그 까닭을 써 보자.

측

반대 측

• 그 까닭: 반대 측은 대체 실험의 발전 단계와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찬성 측이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대체 실험이 현재 상황에서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측 논리의 허점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기에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

1 이 토론의 입론에서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양측이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입론을 구성해 보자.

(1) 입론의 첫 번째 주장에서 양측이 어떻게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

주장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유 실험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거

- ① 실험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례와 보고 자료
- ② 실험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사례
- ③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 (그래프)

반대 측의 첫 번째 주장

주장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 ① 미국의 동물복지법, 한국의 동물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음.
- ② 각 동물 실험 기관 내에 동물실험감독위원회가 있어 동물 실험을 감독하고 있음.

(2) 자신이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자라고 가정하고, <보기>의 근거를 참고하여 두 번째 입론의 논증을 구성해 보자.

<보기>

- 토끼의 눈을 벌려 강제로 약을 넣는 잔인한 동물 실험의 영상 자료
- 일부 동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 비용이 적고 효율이 높은 대체 실험인 '환자 관찰'의 사례
- 대체 실험인 '사체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의학적 연구를 한 여러 사례
- 실험동물을 사들이고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통계 자료
-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때 사람들의 생명 존중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주장 1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수많은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토끼의 눈을 벌려 강제로 약을 넣는 잔인한 동물 실험의 영상 자료
•일부 동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때 사람들의 생명 존중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주장 2

대체 실험은 동물 실험보다 경제적이다.

이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동물 실험에 비해 대체 실험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실험동물을 사들이고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통계 자료
•비용이 적고 효율이 높은 대체 실험인 '환자 관찰'의 사례
•대체 실험인 '사체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의학적 연구를 한 여러 사례

2 토론에서 의사소통할 때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다음 토론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토론자는 무엇에 유의하여 말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반대 1)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르면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 (반대 2)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 (찬성 1) 주장, 이유, 근거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 (찬성 2) 토론에서 주장을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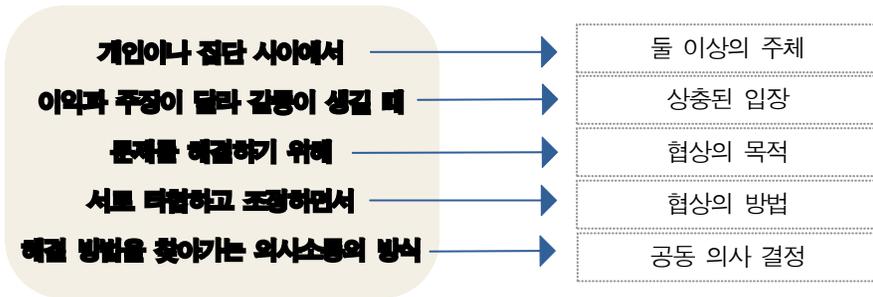
(2) 토론에서 상대측이 발언할 때 듣는 사람은 무엇에 유의하여 들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 상대측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측과 대립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 *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 * 상대측 발언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

“협상과 갈등 해결” 협력 모델

Ⅰ 협상의 개념과 절차

■ 협상의 개념



■ 협상의 절차

사작 단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봄.
조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확인하며,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함.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혀 감.
해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함.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며, 합의한 바를 이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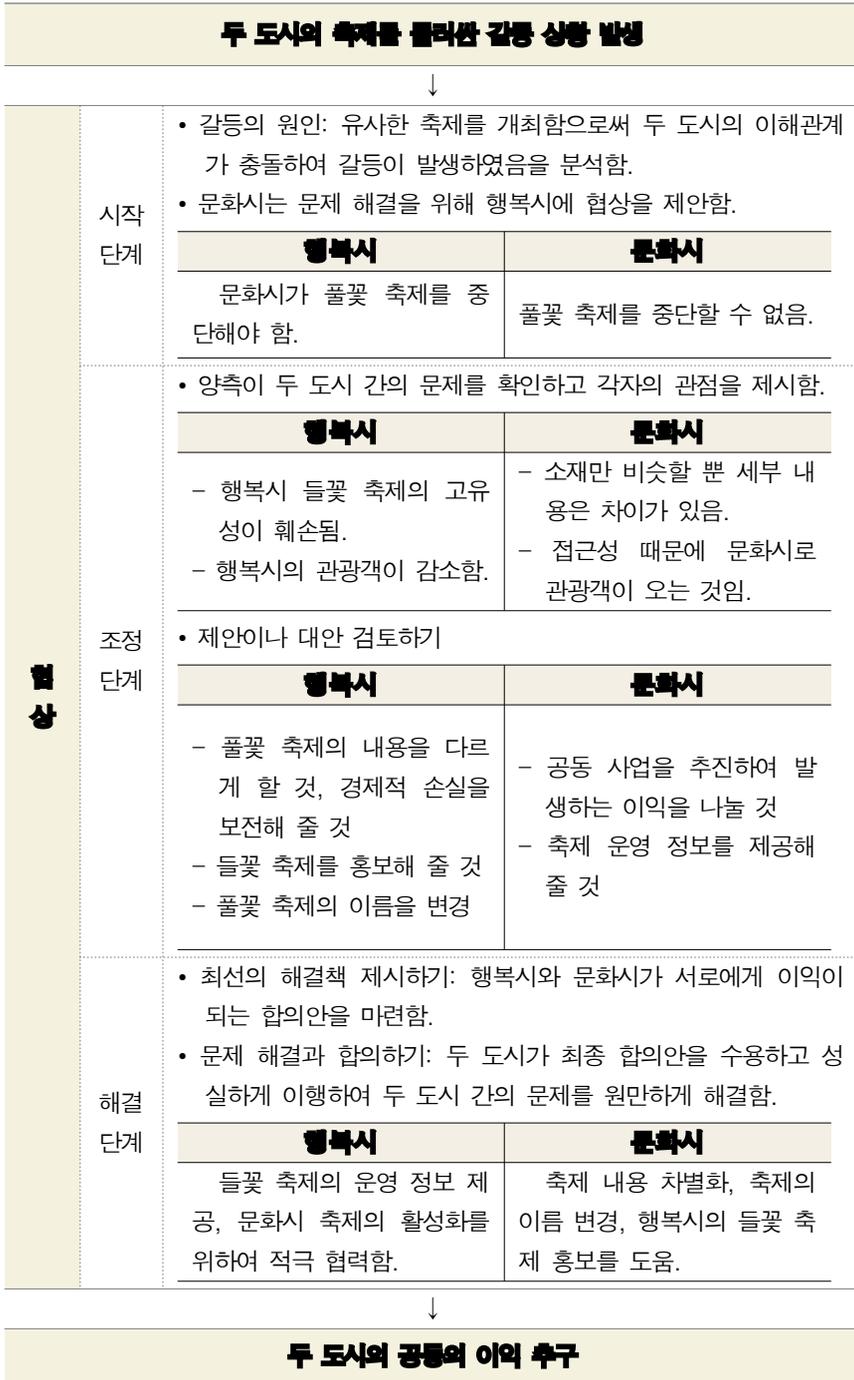
■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대안을 탐색할 때	의사를 결정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 파악하기 갈등을 유발한 걸림돌 찾기 상대방과 교환할 수 있는 것 살펴보기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대안 선택하기 구체적인 합의 이행 계획 세우기

Ⅱ 제지 정리

형태	카드 뉴스	성격	해설적, 체계적
제지	두 도시 간에 발생한 갈등과 협상		
주제	대안 탐색과 의사 결정을 통한 협상 방법 이해		
특징	① 이미지와 문구가 결합된 ‘카드 뉴스’ 형식으로 협상의 단계를 직관적으로 제시함. ②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안 탐색, 의사 결정의 과정을 보여 줌.		

■ 행복시와 문화시의 협상 과정



크리스틴 박은희

1 행복시와 문화시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였는가?

- 두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 행복시는 문화시의 축제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시는 행복시의 문제 제기 때문에 축제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 ‘들꽃 축제’가 ‘풀꽃 축제’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두 도시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행복시와 문화시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장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행복시의 주장: 문화시는 ‘풀꽃 축제’를 중단하라.
→ 까닭: 문화시의 ‘풀꽃 축제’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 문화시의 주장: ‘풀꽃 축제’를 중단할 수 없다.
→ 까닭: 문화시의 ‘풀꽃 축제’가 행복시의 ‘들꽃 축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 협상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두 도시가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알아보자.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도시의 대안 탐색 과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 보자.

제안	문화시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꽃 축제’의 내용을 우리 축제의 내용과 더욱 다르게 하라. • 우리 시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부터 새로운 내용을 개발하여 ‘들꽃 축제’와 차별화하겠다. •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행복시의 축제를 홍보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분배하겠다.
문화시의 제안	행복시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시는 ‘들꽃 축제’의 운영 정보를 제공해 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꽃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대신 ‘풀꽃 축제’의 이름을 바꾸어 ‘들꽃 축제’와 더 차별화하라.

(2) 두 도시는 최종 합의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었는가?

	양보한 것	얻은 것
행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의 ‘풀꽃 축제’를 유지하게 함. • 축제 운영 정보를 문화시에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꽃 축제’의 고유성을 확보함. • 문화시 홍보로 관광객이 증가됨. • 공동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함.
문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차별화 방안을 개발해야 함. • 행복시의 ‘들꽃 축제’ 홍보를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꽃 축제’ 운영을 지속함. • 행복시의 ‘들꽃 축제’ 운영 정보를 얻음. • 공동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함.

2 두 도시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고,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행복시

들꽃 축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에 이와 비슷한 풀꽃 축제가 생긴 이후 우리 시의 관광객이 감소해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러니 축제를 중단해 주십시오.



문화시



문화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축제를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시와 문화시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두 축제에서 사용하는 꽃도 다른 것 같습니다.



행복시



행복시

어쨌든 따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이 감소했다니깐요.



문화시



문화시

네, 말씀하신 대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축제는 개최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행복시의 관광객이 우리 축제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행복시



행복시

축제 소재가 비슷하면 관광객이 나뉘는 게 당연하죠. 축제를 중단해 보세요. 그럼 우리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시



문화시

소재가 비슷해도 내용을 달리하여 운영한다면, 두 도시 모두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1) 양측이 의사소통하며 잘 지킨 항목을 다음 표에 표시해 보자.

		문화시
의사소통의 목적을 고려하여 듣거나 말하였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거나 말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양측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정할 내용을 찾아 어떻게 고쳐 말해야 할지 꼭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 행복시의 두 번째 발언: 어쨌든 따라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이 감소했다니까요. → ‘꽃’이라는 소재가 동일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와 사용하는 꽃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관광객들은 소재가 동일한 축제로 인식하므로 우리 시의 관광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행복시의 세 번째 발언: 축제 소재가 비슷하면 관광객이 나뉘는 게 당연하죠. 축제를 중단해 보세요. 그럼 우리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자료는 우리 행복시의 ‘들꽃 축제’ 관광객 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화시의 ‘폴꽃 축제’가 개최되면서 ‘들꽃 축제’의 관광객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을 참고하여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말해 보자.

일반적인 협상가와 뛰어난 협상가 사이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 뛰어난 협상가는 상대의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삼가고,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협상을 성공시킬 확률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스투어트 다이아몬드(김태훈 옮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 협상에서 상대가 싫어하는 표현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태도
- 협상에서 상대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태도
- 상대가 자기 측의 문제점이나 잘못 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태도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3. [가]를 듣고 찬성 측 제1 토론자가 [나]의 교차신문을 준비하면서 떠올렸을 만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반대 측이 사용한 용어의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질문해야겠어.
- ③ 우리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근거를 언급하며 반대 측의 논증을 반박해야겠어.
- ④ 반대 측이 동물 실험의 정확성에 대해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겠어.
- ⑤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정이 동물 학대 문제를 완전히 예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4. 토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책 논제에서 찬성 측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② 토론의 논제는 '~이다' 등의 긍정적 진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③ 반대 신문식 토론은 논제의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문제, 해결방안, 효과와 이익 등이 주요한 필수 쟁점이 된다.
- ⑤ 교차신문은 상대측이 반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하여 따져 묻는 말하기이다.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5. 논제의 종류와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사실 논제-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 ② 정책 논제- 경제 성장보다 사회 복지가 중요하다.
- ③ 사실 논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 ④ 가치 논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한다.
- ⑤ 가치 논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연령을 올려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 실험이란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인 실험을 말합니다. 이 동물 실험은 인간에 의해 많은 동물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의 먹이와 물의 공급을 제한하여 특정 사료만을 먹게 하거나, 실험동물을 묶어 놓고 피부에 상처를 입힌 뒤 그 치유 과정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 9만 7천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 과정에서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실험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현실을 잘 보여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은 수많은 동물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특정 약물을 개발할 때는 실험 약물의 투여 농도를 점점 높여 가면서 동물이 사망에 이르는 용량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거나 목뼈를 빠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동물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이지만 이를 사용한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신경 안정제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을 통과했지만, 그 약을 복용한 많은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모사에서 개발했던 유명한 관절염 치료제 역시 동물 실험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명되었으나, 그 약을 복용하고 무려 2만 7천여 명이 급성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수의학자가 쓴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던 약물이지만 그 약물의 거부 반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94년 미국에서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약의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까닭은, 동물의 생물학적 구조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 / 신의 방” 문역 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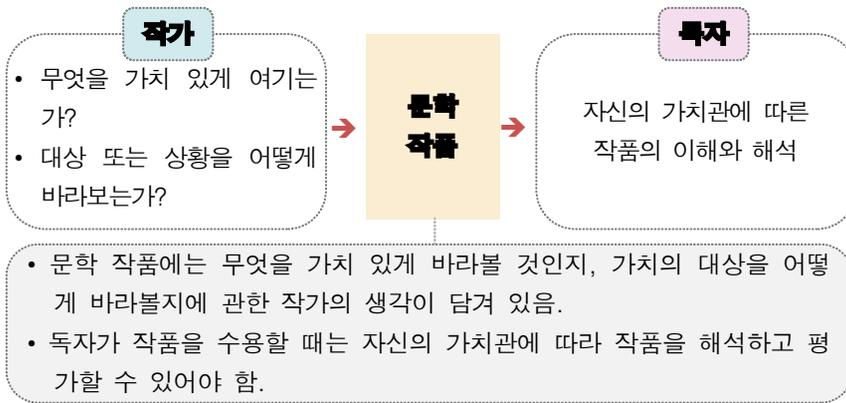
Ⅰ 사회·문화적 가치의 의미와 특징

① 의미

- 가치: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
- 사회·문화적 가치: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 작가가 중시한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목표, 추구해야 할 대상 → 작품의 주제 의식과 연관되어 있음.

② 특징: 사회·문화적 가치는 시대나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Ⅱ 사회·문화적 가치의 주제적 평가



1연 까마득한 날에

과거
하늘이 처음 열리고
광야의 탄생, 천지개벽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생명의 기적, 인간의 생활

() : 하늘이 처음 열리는 태초의 적막하고 혼돈한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음. 태초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장엄한 순간

▶ 1연: 태초의 광야(시간적 신성성)

2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야-민족의 터전 신성불가침의 땅임.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 우리 국토와 민족의 역사가 지닌 신성성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의 공간을 침범한 일제의 부당함을 비판함.

▶ 2연: 광야의 광활함(공간적 신성성)

3연 끊임없는 광음을

세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시간의 흐름을 반복되는 꽃의 개화와 낙화로 표현함.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 문명

▶ 3연: 역사와 문명의 시작

4연 **지금** 눈 나리고
 현재-고난과 시련의 현실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고고한 기상, 조국 광복에의 의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희생의 의지

() : 눈이 내리는 추운 계절에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한 상황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고고한 의지 또는 쉽게 꺾이지 않는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자기희생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
 ▶ 4연: 암담한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
 '뿌려라'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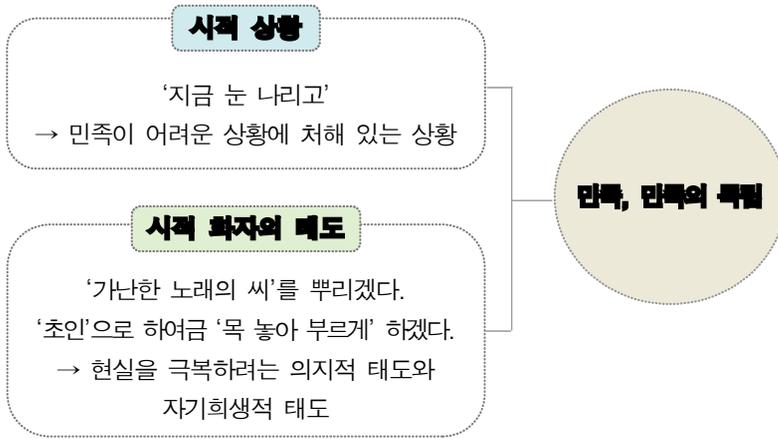
5연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위대한 자, 성스러운 존재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생략된 목적어: '노래를' ← 4연 '노래의 씨를' ▶ 5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PPT 제재 정리

⊙ <광야> 제재 정리

김계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제지	광야		
주제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		
특징	① 독백적 어조로 시적 화자의 내적 신념을 드러냄. ②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 시상을 전개함. ③ '눈'과 '매화'의 대조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현함.		

■ <광야>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



■ <광야>의 시간과 공간

이 시에는 까마득한 태초부터 천고(千古)의 뒤까지 많은 시간이 압축되어 무한한 시간성을 드러낸다. 또한 2연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끝없이 넓은 공간을 제시하여 공간 의식도 무한히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적 무한성과 공간적 광활함은 이육사의 시를 강인하며 남성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

■ '매화'의 상징적 의미

매화는 유교의 전통에서 고결한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다. 매화는 추위를 이겨 내고 눈 속에서 피어나며, 향기가 그윽하다. 이는 마치 고결한 선비가 외부의 억압에 맞서고, 불의에 물들지 않으며, 맑은 향을 퍼뜨리면서도 안락을 피하지 않는 것과 같다.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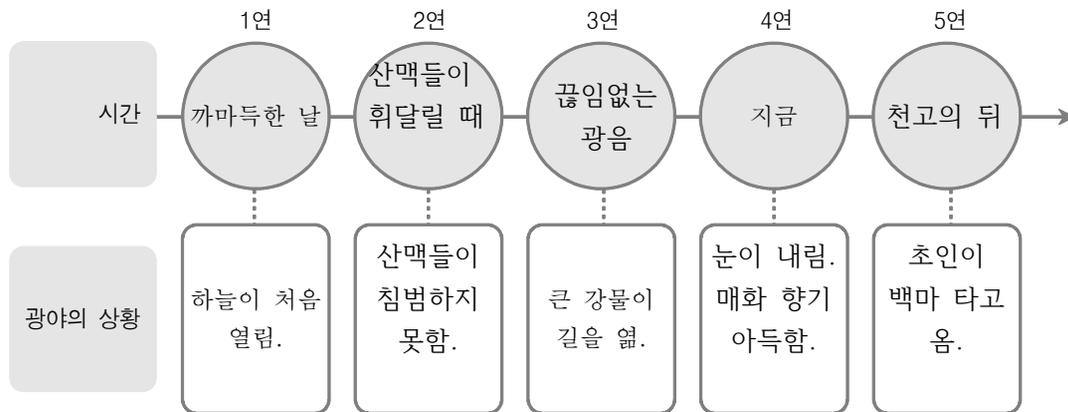
과거 (1~3연)	까마득한 날	광야의 탄생과 신성성, 역사와 문명의 시작
↓		
현재 (4연)	지금	암담한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
↓		
미래 (5연)	천고의 뒤	미래에 대한 기대 와 확신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시어 및 시구	상징적 의미
광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
눈	겨울,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자 조국의 암담한 현실
매화 향기	암담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매한 의지와 절개
가난한 노래의 씨	• 미래의 결실을 위해 고난 중에 씨를 뿌리는 자세 •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을 위한 자기희생적 헌신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 줄 지도자 또는 미래 역사의 주인공(후손)

모티브 학습 활동

* 시 <광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해 보자.

(1) 다음을 읽고,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 보자.



이육사는 국운이 기울던 1904년에 태어나, 해방한 해 전(1944년)에 일제의 북경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어려서 유학자인 조부 아래에서 공부하였으며 커서는 항일 운동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만 23세 때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발물 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하였는데, 당시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다. 호 '육사'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일생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 일제의 식민지가 된 현실에 맞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삶을 살았다.

(2) 시인의 삶을 참고하여 이 시의 '광야'와 '지금 눈 나리고'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자.

	지금 눈 나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민족의 역사를 이어 나갈 공간 	우리 민족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음.

(3)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와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거 허리리"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 민족이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준비하는 선구자의 태도가 느껴진다.

(4)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민족, 민족의 독립

2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주제적으로 평가해 보자.

(1)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

- 나는 민족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국민인 우리에게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나는 민족에 관한 문제가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세계화·국제화 시대가 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민족을 중시하고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덜 중요해졌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개인의 삶과 행복, 인류애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연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제주의 검은 돼지 흠의 온기를 좋아하여 흠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균요)기른다는 것이 생명의 흠을 나타내며 '시멘트'와 대조적임.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인 친근해짐, 관계 맺음, 제주 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구멍이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 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흠 통시의 내부 공간 묘사 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테요)음 대자연의 일부로서의 생명 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 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 생명의 기운이 남은 것 = 생명 들이 제힘으로 다시 빛날 때(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 버려진 음식물에도 생명의 속성이 있음을 나타냄. 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테요)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 보리밭 거름으로 바뀌어 었던 것은(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 생명의 기운

(): '통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 설명으로, 시적 화자는 이 공간을 '재미난 방'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생명이 순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인간이 버린 음식물 → 돼지 → 배설물 → 보리밭 거름 → 보리 → 인간)

▪ 통시 제주 지역에서 변소와 돼지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공간.

▪ 공양 ① 부처(佛) 등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일. ② 철에서 음식을 먹는 일.

▶ 1연: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통시

():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살아 있는 것에게 바쳐진다는 의미로, 생명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원리에 대한 섬 주민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음.

2연 : 산업화 시기 이전에 있던 삶의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던 움직임을 가리킴. '시멘트'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했던 물자임.

2연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 **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 **데요** 흔적이거나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편리성, 효율성의 가치 상징
반생명 이미지, '죽', '돌'과 대조
생명의 공간을 내포한 몸
생명이 순환되는 일
자연과 생명의 섭리를 아는 제주 사람들

통시 : 제주도 신화에 따르면 통시는 무서운 신이 관장하는 공간으로 함부로 할수 없는 공간이었음. 여기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공간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음.

통시가 돼지라는 생명을 기르는 방이듯, 화자는 자신의 몸도 어떤 생명을 기르는 방으로 보고 있음. 통시와 화자의 몸이 모두 생명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그로 인해 친근함과 친밀성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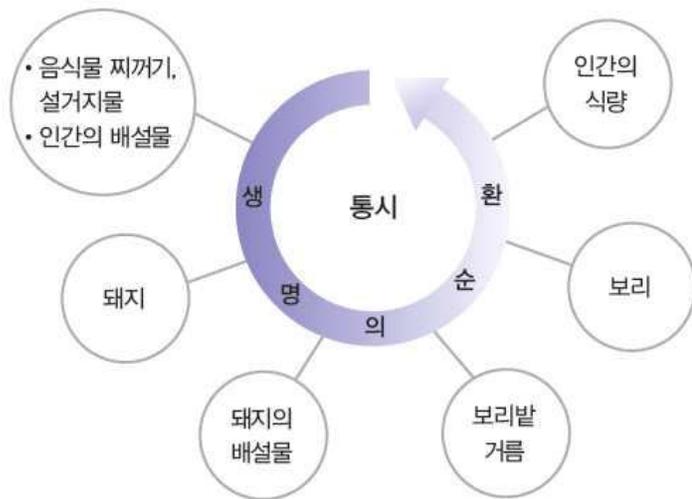
▶ 2연: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생명의 공간 통시

PPT 재재 정리

4 <신의 방> 재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묘사적, 사색적
제지	통시		
주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통시		
특징	① 제주도의 전통적 공간에서 생태적 순환의 의미를 읽어 냄. ② 생태적 가치관과 편리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대조함.		

■ <신의 방>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의 추구

『통시』와 관련된 제주도의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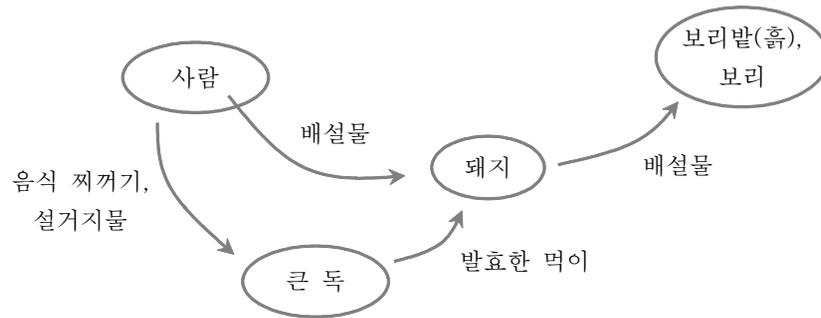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신화에 따르면, 아주 까다로운 신이 '통시'를 관장하고 있어서, 특별한 때가 아니면 돌멩이 하나 선불리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한다.(*교사용 지도서 354쪽 '수업 연구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내 몸속의 방』의 성격

『내 몸속의 방』이 무엇을 가리키든 이들은 모두 생명의 공간이다. 모든 생명은 생명적인 것을 산출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바침으로써 다른 생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고기든 생명체든 배설물이든 몸속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박은 열매

1 다음은 시 <신의 방>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1) 위 그림을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적에게 설명해 보자.

사람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나 설거지물은 큰 독에 저장되었다가 돼지에게 간다. 사람의 배설물도 통시를 통해 돼지에게 간다. 돼지가 이것들을 먹어서 생긴 배설물은 보리밭으로 간다. 보리밭으로 간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보리에게 양분이 된다.

(2) 위 그림에 화살표를 더 그려 넣어 보고, 그렇게 한 까닭을 말해 보자.

- ' '→'사람':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보리밭(흙), 보리'→ '사람': 사람이 보리를 먹기 때문이다.
- '사람'→'보리밭(흙)':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시』와 『(계명면) 변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개량된) 변소	
같은 점	기능	인간의 배변 공간	
다른 점	구조	인간이 대소변을 보는 곳과 돼지우리가 함께 있음.	변소가 돼지우리와 분리되어 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배설물을 먹여 돼지를 기름. •돼지의 배설물이 밭의 거름이 됨. 	인간의 배설물을 별도로 모아 처리함.

1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해 보자.

(1) 밑줄 친 시구에 공통으로 담긴 생각은 무엇인가?

……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

- 자연 속에서 동물과 식물의 생명은 순환된다.
- 생명 순환은 자연의 섭리이다.
-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2) 이 시의 내용이 어떤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되는지 말해 보자.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태적 삶 또는 생태적 삶의 소중함, 생명 존중 등

(3) ‘통시’와 ‘(개량된) 변소’가 각각 상징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말해 보자.

- *통시: •생명이 순환하는 생태계에서 인간도 그 일부로서 살아가는 삶
 - 인간이 다른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삶
 - 자원을 덜 소비하고 재활용하는 삶
- *개량된 변소: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는 삶
 - 기술을 통해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삶
 - 자원을 많이 소모하며 낭비하는 삶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나)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講義)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송현고등학교 (경기)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현실 속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송현고등학교 (경기)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태초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 ② ㉡ : 광야가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보며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 ④ ㉣ :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자 민족을 이끌 구원자이다.

송현고등학교 (경기)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자기희생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송현고등학교 (경기)

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육척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 ②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시인의 삶에 대한 괴로움이 나타난다.
- ③ '땀내'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노고를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고결함을 유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갈등이 극복되고 화해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송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는 창 밖을 보던 화자가 방 안으로 시선을 향하면서 시작된다. 시적 화자는 방 안팎의 풍경을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된다. 화자는 한 동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다 다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화자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

- ① 자신의 무한한 욕망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②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 ③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고생에 보답하고 있다.
- ④ 현실 속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 ⑤ 다른 이들과 소통하지 못해 떠나버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송현고등학교 (경기)

6. ㉠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 시어를 (가)에서 찾아 쓰고, 그 상징적 의미를 반영론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겨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 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 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 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빛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의 방」 -

송현고등학교 (경기)

7.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②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황만근을 이렇게 말한다” 분석 정리

①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가치

- ① 인물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 작가가 중시하는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목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인물을 통해 형상화 되어 나타남.
→ 작품의 주제 의식과 연관되어 있음.
- ② 배경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
 - 배경은 문학 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및 시대의 환경으로, 문학 작품의 주된 소재를 제공함.
 -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배경을 통해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함.

② 제지 정리

길이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비극적
제지	농사꾼 황만근의 삶		
주제	① ‘황만근’의 덕성과 훌륭한 삶에 대한 예찬. ②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		
배경	1990년대 말, 신대리(경상도 농촌 마을)		
특징	①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함. ②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 주인공 황만근의 삶을 평가함. ③ 사투리를 사용한 향토성과 인물의 언행을 통한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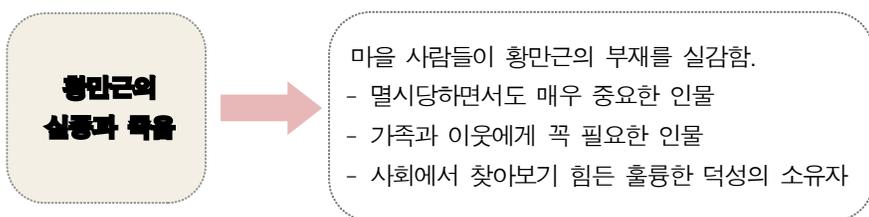
■ 등장인물의 특징

황만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함. · 사람들에게 대해 배려심이 있고 공평무사함. ·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홀로 경운기를 끌고 감. · 농사꾼을 부채를 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짐. → 모자라지만 이타적이고 성실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
이장	황만근의 실종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인물
민 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인 · 마을에서 황만근의 진실성을 유일하게 인정해 줌.
마을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만근을 무시하고 그를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대우함. · 황만근의 부재로 그가 마을의 힘든 일을 대신해 왔음을 실감하고 아쉽게 느낌.

■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특징

황만근	↔	마을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인물 · 평균 이하의 인물 · 전통 사회의 인물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물들 · 평균적인 인물들 · 자본주의 사회적 인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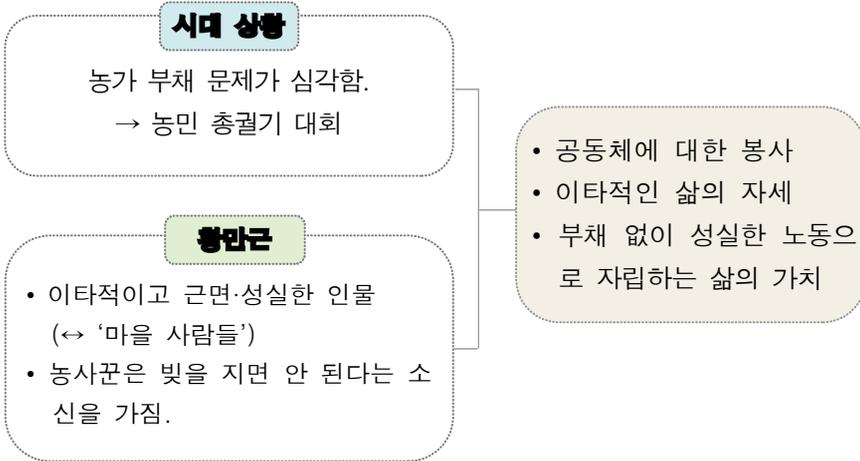
■ ‘황만근’의 죽음의 의미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나타난 농촌의 현실

- 마을 전체가 부채로 파산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농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했음.
-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함.
-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서 농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남음.
-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농가 소득이 높지 않음.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



■ 황만근과 술

- 마을의 술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고꾸라지도 록 마심.
-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 짜리 술통을 싣고 다님.
- 식사 전후로 막걸리 반 양푼씩을 마심.

→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하며 즐기. 민 씨가 추후에 그를 평가할 때 막걸리는 황만근의 '힘의 근원'이고 낙천(樂天)의 '빠'라고 함.

■ 이장의 이기적 면모

- 바빴다는 핑계로 궐기 대회 방침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함.
 - 경운기를 타고 국도를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황만근에게 강요함.
 -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을 타고 궐기 대회에 온 사람도 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함.
- 이장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남.

■ '묘비명' 속의 황만근



★ **황만근의 말에 나타나는 황만근의 소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 전통적인 농업, 소자본, 노동 집약적 농업을 지지함.
- 농업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과 자금 대출 정책을 비판함.

농가 부채

- ▶ 불필요한 설비에 투자함.
- ▶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음.
- ▶ 능력 이상의 부채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됨.

민 씨에 의해 타자화된 황만근

민 씨
 두어 해 전에 귀농해 온 외부인으로,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중도적 입장에서 황만근의 삶을 타자화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



황만근의 상황과,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과 달리 방침을 따르는 황만근의 행동은 민 씨에 의해 타자화되어 삶을 되돌아보고 농촌 현실과 세태를 비판하게 함.

자신을 돌보지 않는 황만근

- 밥상을 돌이나 차리면서도 자신은 상 없이 밥을 먹음.
- 목욕한 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이 듦.
- 씻거나 옷을 차려 입는 법이 없음.
- 들일을 하는 날의 점심은 생라면과 막걸리뿐임.

소설의 시작

황만근의 실종

- 마을 사람들의 소집 계기
-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드러남.
-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후의 내용 전개에 몰입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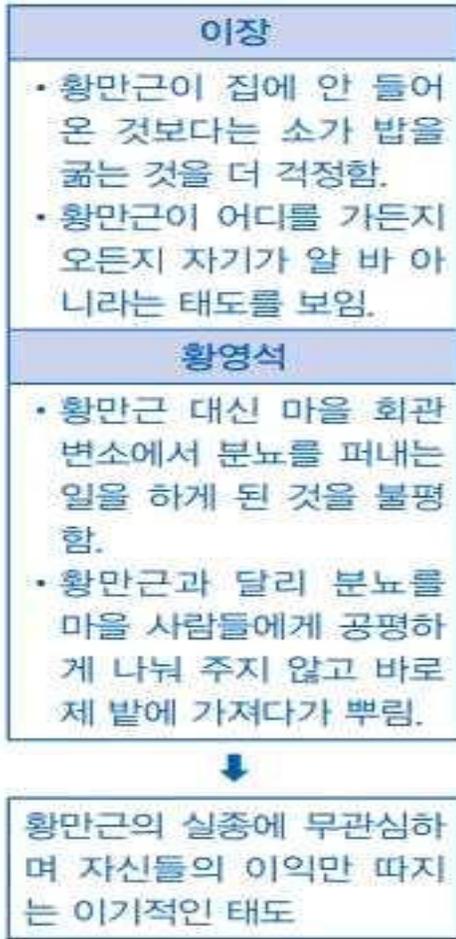
민 씨와 이장의 갈등

민 씨는 황만근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듯 집요하게 이장에게 묻는다.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하고 민 씨를 흘기듯 노력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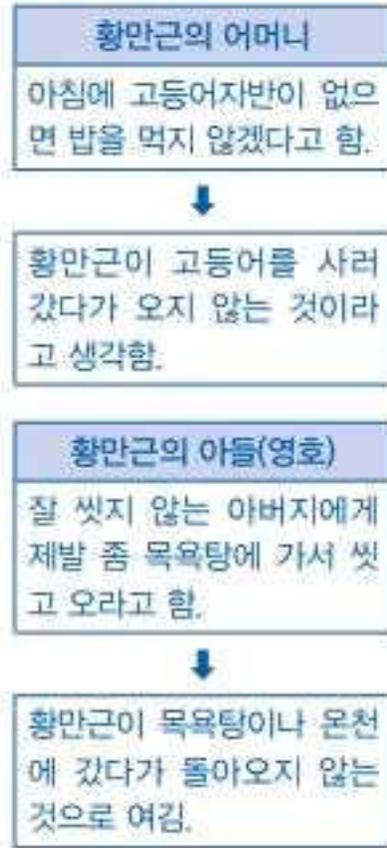
황만근 부자가 나누는 대화의 특징

-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이 언짢은 기분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음.
- 두 사람의 상하 관계가 전복된 것처럼 보일 만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허물이 없음이 드러남.

■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이장과 황영석의 태도



■ 황만근의 실종 원인에 대한 새로운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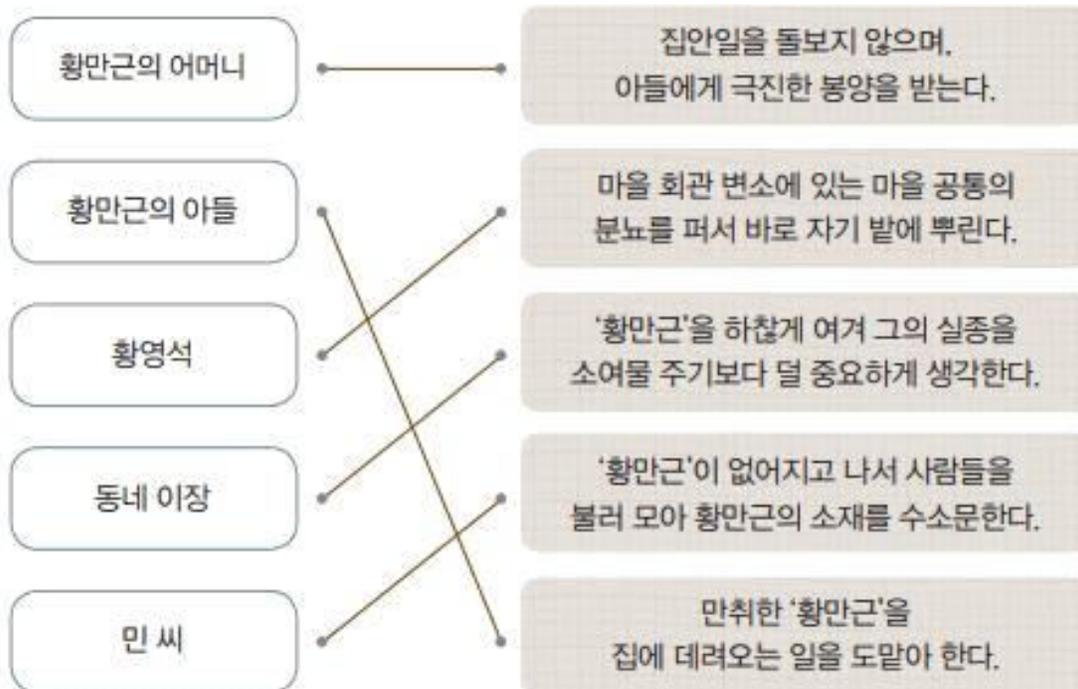
■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



모티브 학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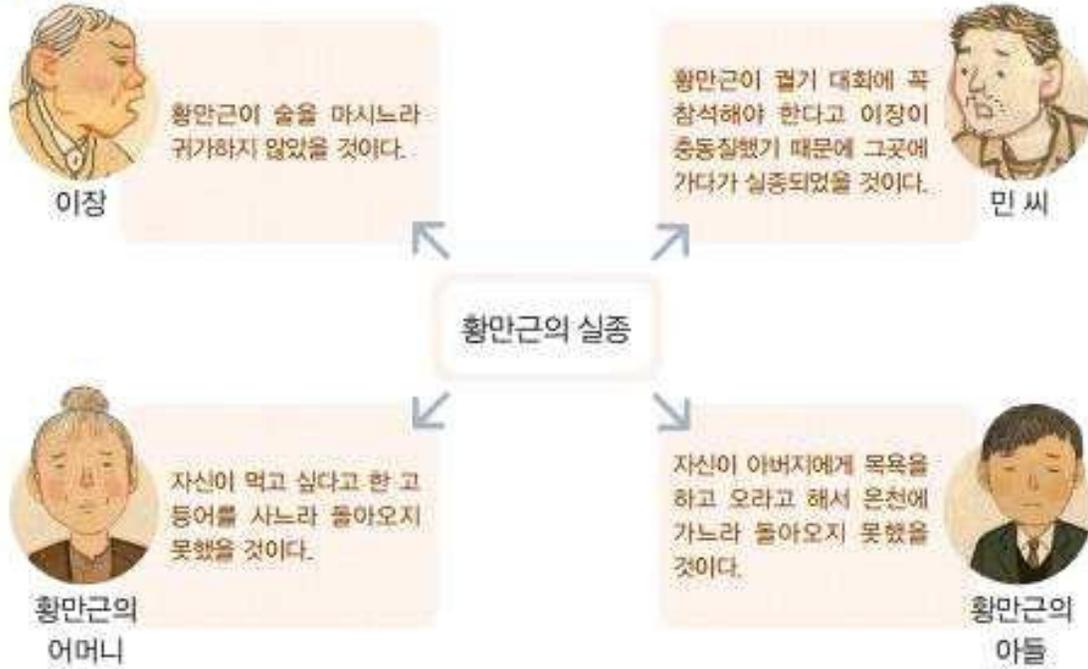
●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살펴보자.

(1) 각 인물에 해당하는 특성을 찾아 연결해 보자.



(2) '황만근'이 없어졌을 때 주변 인물들이 추측한 실종 원인을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3)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 '농민 총궐기 대회'는 왜 열린 걸까?
→ 마을 전체가 부채로 파산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농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 동네 사람들은 왜 굶은일을 황만근에게 떠넘긴 걸까?
→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 등장인물 대부분은 왜 나이가 많을까?
→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서 농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이다.
- 민 씨가 묘비명에 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 아무리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부채는 많고 농가 소득은 높지 않아 빛에 허덕이는 농촌의 현실을 의미한다.

2 '농민 총궐기 대회'를 중심으로 하여 '황만근'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썰기 대회 전날 저녁	'이장'이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끌고 썰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함.
↓	
썰기 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민 씨'에게 <u>농사꾼이 부채를 지면 안 된다는</u> 이야기를 함.
↓	
썰기 대회 날 낮	'황만근'이 행동 지침에 따라 <u>경운기를 끌고 면소를 거쳐 군청에 늦게 도착함</u>
↓	
썰기 대회 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u>경운기가 논 옆의 길로 떨어짐</u>
↓	
썰기 대회 일주일 후	'황만근'이 유골이 되어 돌아옴.

1 이 작품을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이해해 보자.

(1) 다음 중에서 ‘황만근’의 덕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개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자.

근면·성실	나눔	배려
소신	신뢰	효심
공평무사	한결같음	헌신

- 근면·성실: 황만근은 농사든 동네일이든 가사든 매사 꾸준하고 열심히 하였다.
- 나눔: 황만근은 동네를 위해 늘 봉사하였다.
- 배려: 황만근은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된 노인들에게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 소신: 황만근은 농사꾼이 부채를 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부채 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
- 신뢰: 동네 사람들이 맡긴 일을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게 해내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 효심: 어머니가 집안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을 만큼 황만근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
- 공평무사: 황만근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나온 거름을 골고루 동네에 나누어 주었고,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 동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 한결같음: 황만근은 동네 일, 남의 일,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도맡아 처리했다.
- 헌신: 황만근은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성을 다해 가족을 돌보았다.

(3) 이 작품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 공동체에 대한 봉사, 이타적 삶의 자세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 부채 없이 성실한 노동으로 자립하는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 같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 씨는 이장이 쫓겨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쫓겨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쫓겨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냐.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강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강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강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 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강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강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강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퀘이맨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나)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 “만그이가 있었으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찢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가다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짹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禮)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山役)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굶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댓가는 없거나(동네일인 경우), 반값이거나(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가사 따랐다.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 없는 대쳐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쟁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굵신굵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라)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똥만 똥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터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킁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 봐야 그 빛 갠느라고 정신 없다.”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탕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석, 곡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다.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내가 왜 빛을 안 켜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개.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향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싣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당대 농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가)~(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만근의 실종원인에 대해 이장은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민 씨는 이장의 지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민 씨는 지도자인 이장부터 출선수범해야 한다는 말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이장은 다수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 ④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불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민 씨는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혼자만 췌기 대회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평소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황만근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 :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며 이용했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그 가치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 ④ ㉣ : 정직하게 농사짓는 대신, 겉보기에만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몸에 해로운 농약과 나쁜 비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한 줌의 재가 되어 향아리에 담긴 채로 아들의 품안에 안겨 돌아온 황만근의 허무한 죽음을 나타낸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1) <보기1>의 ㉠, ㉡에 해당하는 것을 (가)~(라)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1>
㉠ 황만근이 췌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자,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암시하는 소재이다. (3어절로 쓸 것.) ㉡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의 제목으로,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 노래이다. (4음절로 쓸 것.)

(2) (가)~(라)를 통해 알 수 있는 황만근의 삶의 모습을 <보기2>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적 삶의 태도 • 이타적 삶의 자세 • 이해타산적인 모습 •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의 자세 •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자세 • 무책임한 사람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모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밭꿍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계서 나서 사는 동안 한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겠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꺾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꺾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및 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꺾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나)

“그제 밤에 내일 꺾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꺾기 대회 꼭 나오라 겠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나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및 없더마. 소리마 및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패이맨구루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코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중략>

(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나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동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며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찢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가다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까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짝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라)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庖丁)의 업(業)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손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제,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禮)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山役)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움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굶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동네일인 경우), 반값이거나(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마)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 없는 대쳐 읍내 같은 데 갔오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쟁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벋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 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열 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 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쳐 썼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쫓기 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 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쫓기 대회 전날 밤에 민 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 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쫓기 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 버렸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 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화원고등학교 (대구)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시점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회원고등학교 (대구)

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보다 소여물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②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이 한 음식을 먹어본 후 그 솜씨에 놀라워했다.
- ③ '황영석'은 분노를 거름으로 익힌 뒤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여 씨 노인'은 '황만근'과 비교되는 '황영석'의 행동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회원고등학교 (대구)

7. (나)와 (라) 부분의 주된 서사 전개 방식을 쓰고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완성형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ㄱ. '(나)는 주로 ~로 ~고, (라)는 주로 ~로 ~다.'의 구조로 쓸 것.

ㄴ.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쓸 것.

회원고등학교 (대구)

8. ㉞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4음절로 쓰고 그 의미를 <조건>에 맞게 완성형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ㄱ. ㉞에 들어갈 한자성어는 한글로 쓸 것

ㄴ. 그 의미는 '~듯이 ~(이)다.'의 구조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중략>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썰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썰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어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 밋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썰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썰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얘, 농민보고 농민 썰기 대회 꼭 나오라 켜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셔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출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울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괘이맨구루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

“오해” 분석 정리

Ⅰ 성찰의 글쓰기의 의미와 효용

- ① 성찰의 글쓰기: 자신의 삶과 경험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는 글쓰기
- ② 효용
 - 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나 내면을 발견할 수 있음.
 -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됨.
 -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Ⅱ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 과정

글감 정하기	의미 있거나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 떠올리기
내용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떠올린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그때 느낀 감정 정리하기 •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정리하기
내용 조직하기	생성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열하기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경험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 경험과 관련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고쳐쓰기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부적절한 부분을 고쳐 쓰기

Ⅲ 지저 정리

길래	수필	성격	고백적, 성찰적
제지	먹이를 챙겨 주던 도둑고양이에게 놀란 일		
주제	도둑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성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자신의 생활 경험을 고백함. ② 자신이 경험에서 깨달은 점(성찰)과 느낀 점(정서)이 잘 나타나 있음. 		

■ 이 글에 나타난 특징

구성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표현 대상을 오해의 경험으로 잡고, 그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에서 오해에 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함. • 사건과 사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음. • 사건이 진행되다가 극적인 반전이 나타남.
표현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쓴이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음. • 일상적인 표현으로 문장을 써서 글이 쉽고 친근하게 느껴짐. •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음. • 사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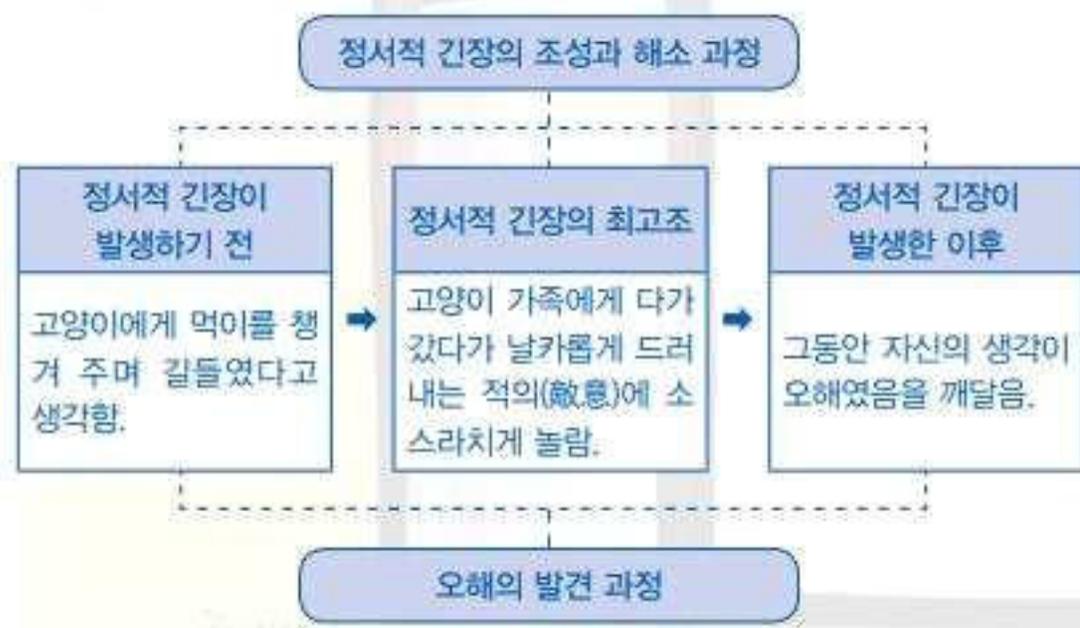
■ (고양이로 인한) 글쓴이의 정서 변화

속상함	잘 여며 놓은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헤집어 놔서 속상함.
재미	고양이에게 줄 먹이를 놓아 주며 고양이를 돌보는 일에 재미를 느낌.
감탄	새끼를 거느린 어미 고양이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함.
기쁨, 감동	고양이 가족의 나들이가 자신에 대한 감사와 친애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감동을 느낌.
놀라움, 공포	순식간에 공격 태세를 보이는 고양이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람.

■ 글쓴이의 오해와 깨달음



★ 이 글의 구성상 특징



오해된 텍스트 분석

1 이 글의 내용을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글쓴이가 겪은 일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을 정리해 보자.

구체적인 내용	정서적 반응
동네 고양이들 때문에 수거차가 지나간 뒤에도 문 앞에 닭 뼈나 생선 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님.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접시에 담아 두면, <u>고양이가 매번 음식을 먹어치웠다.</u>	재미를 붙임.
뒷문 밖 뒷마루에 얼룩 고양이가 <u>꼭 저 닭은 새끼를 다섯 마리나 거느리고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u>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낌.
내가 고양이에게 다가가니, <u>고양이가 나에게 적의를 보이더니 새끼들을 데리고 사라졌다.</u>	기절을 할 뻔하게 놀람
부엌문을 닫고 나서 생각하니, <u>고양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고양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임을 깨달았다.</u>	어처구니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남.

(2) '오해'를 중심으로 하여 글쓴이의 깨달음을 정리해 보자.

고양이에 관한 오해	고양이에 관한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이는 내가 주는 음식을 좋아했을 것이다. 고양이는 나에게 사랑할 겸, 감사와 친애를 표시할 겸해서 나들이를 왔을 것이다. 고양이는 나를 공격하려 했을 것이다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이는 직접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고양이가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나들이를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 고양이는 내가 아닌 새끼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2 구성과 표현 면에서 이 글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 보자.

- 구성 면: 주된 표현 대상을 오해의 경험으로 잡고, 그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에서 오해에 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사건과 사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 사건이 진행되다가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다.
- 표현 면: 글쓴이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일상적인 표현으로 문장을 써서 글이 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 사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가 어떤 효용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1) 이 글을 쓰고 나서 글쓴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생각해 보자.

측면	도둑고양이를 돌보았던 경험을 좀 더 객관적으로 차분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정서 측면	기질할 뻔하게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양이에 대한 인식 측면	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깨닫고,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대상을 판단했던 것을 반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이 글처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지 다음을 참고하여 말해 보자.

성공을 부추기는 사회, 소비를 유혹하는 사회, 디지털 문명사회.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병상에 눕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자신을 만나는 방법이긴 하지만, 글쓰기는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생애 최고의 순간, 잊을 수 없는 장소,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다시 마주하고 싶은 밥상 등을 하나하나 불러내면 되는 것이다. 지난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난다.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기만 해도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문재, <내가 나를 쓰는 시간>에서, 《경향신문》(2013. 6. 19.)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 독자는 반복되는 일상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욕망, 감정을 포함한 내면의 목소리를 억제한 채 살아가지만, 글을 쓸 때는 내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숨겨진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문제 탐구 문제

1. 땅 집에 살면서 글쓴이가 쓰레기봉투에 더욱 신경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봉투가 어느 집 것인지 모르지만 땅 집에서는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놓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서도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깔끔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2. 글쓴이가 뒤쪽 뒷마루에 와 있는 어미 고양이에겐 기특함을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
 그동안 자신이 음식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양이가 감사와 친근함의 표시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고양이가 떠난 뒤 글쓴이는 고양이를 어떤 동물로 생각하게 되었는가?
 자유와 자존심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동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경일고등학교 (부산)

5. 글쓴이는 깨달음을 얻은 뒤 고양이를 어떤 동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다음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1. “고양이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의 문장 형식으로 쓸 것.

2. 본문에 나오는 어휘를 이용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땅 집에 살고부터는 더 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써진다.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내다버리는 순간 쓰레기봉투는 익명의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땅 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놔야 하기 때문에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 붙인 거나 다름이 없다. 쓰레기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미게 된다.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내 허영심을 비롯듯이 수거차가 오기 전에 우리 쓰레기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고양이들의 소행이었다. 개는 안 기르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고양이 기르는 집은 없는 것 같은데도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많다. 이렇게 도둑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쥐가 거의 없다는 게 동네사람들의 설명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 뼈나 생선 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렸을 미화원 아저씨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거였다.

그것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그 후부터 쓰레기봉투가 훼손당하는 일은 안 생겼고,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비리는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식성은 찹찹했지만 생선 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지까지도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 만했다. 그 대신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 닭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다

먹어 치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여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녀석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고양이가 있었지만 우리마당을 환각처럼 바람처럼 스쳐지나가는 고양이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었다.

(가) 오랜 장마가 갠 어느 날 오후였다. 마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집안에는 아직 곰팡내 섞인 습기가 많이 남아있어 앞뒷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었다.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무심히 부엌 뒷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뒷문 밖에는 꽤 넓은 뒷마루가 있는데 거기 우리 집 단골 얼룩 고양이가 꼭 저 닳은 새끼를 다섯 마리나 거느리고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어미는 털이 꺼칠했지만 새끼들은 털이 반지르르 윤이 흐르는 게 정말이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어떤 인간의 가족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족은 본 적이 없었다.

(나) 나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감동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잘 얻어먹은 어미 고양이가 그 동안 해산을 해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나에게 자랑도 할겸, 감사와 친애의 표시도 할 겸해서 그렇게 가족 나들이를 나왔으려니 하고 있었다. 그 짹짹하고 영악하지만 한 고양이로서는 기특하기 짝이 없는 마음 씀씀이 아닌가.

(다) 나는 마치 손주 새끼들 반기듯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 고양이 가족을 환대한다는 표시를 하며 부엌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기절을 할 뻔하게 놀라고 말았다.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으며 으르렁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신속하고도 눈부신 적의(敵意)였다. 다행히 순간적이었다. 내가 혹시 대낮에 환상을 본 게 아닌가싶게 고양이 가족은 소리도 없이 신속하게 모습을 감추었다.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부엌문을 닫아 버렸다.

(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 하고나니까 고양이에 대한 내 오해가 하도 여처구니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났다. 그까짓 먹고 남은 생선 가지 좀 챙겨 주고 나서 내가 녀석을 길들인 줄 알다니, 녀석은 챙겨 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봉투를 뚫고 찾아내는 게 훨씬 스틸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조차 오해일 수도 있었다. 나에게 대한 녀석의 적의는 곧 저렇게 생긴 인간이라는 족속에게 길들여지면 절대로 안돼, 라는 제 새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마) 우리는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기르기를 꺼려한다. 그게 인간들끼리 통하는 생각이려면 고양이들끼리 통하는 생각은 인간이라는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즉 죽느냐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표현 대상을 오해의 경험으로 잡고, 그 배경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사건과 사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고 있다.
- ④ 일상적인 표현으로 문장을 써서 글이 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⑤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7. 뒷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성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마저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지런하고 정갈하다.
- ② 환경 미화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다.
- ③ 글쓴이와 그 식구들이 살을 더 많이 붙여서 남기는 것으로 보아 고양이를 의식하고 배려한다.
- ④ 고양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주의를 기울기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한다.
- ⑤ 아파트에 비해 땅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쓴다.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8. 뒷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이 아닌 것은?

- ① 고양이는 내가 주는 음식보다 직접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 ② 고양이는 나에게 새끼들을 자랑할 겸, 감사와 친애를 표시할 겸 나들이를 나왔을 것이다.
- ③ 고양이는 내가 아닌 새끼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 ④ 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 ⑤ 고양이는 자유와 자존심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동물일지 모른다.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9. (가)~(마)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보기>

반전은 어떤 일이 한 상태에서부터 그 반대 상태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급전시킴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영광여자고등학교 (경북)

10. (마)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에 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맥수지탄
- ② 역지사지
- ③ 타산지석
- ④ 청출어람
- ⑤ 조삼모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땅 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 놔야 하기 때문에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 붙인 거나 다름이 없다. 쓰레기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미게 된다.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고양이들의 소행이었다.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 뼈나 생선 뼈가 어지럽게 널려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렸을 미화원 아저씨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고양이가 좋아할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거였다.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그 후부터 쓰레기봉투가 훼손당하는 일은 안 생겼고,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비리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식성은 찹찹했지만 생선 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시까지도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 만했다. 그 대신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 닭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5-(1)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

1.② 2.⑤ 3.① 4.② 5.⑤ 6.③ 7.'후광의류'의 옷을 구입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회사의 옷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8.① 9.① 10.④ 11.④ 12.① 13.⑤ 14.② 15.③ 16.⑤ 17.① 18.① 19.(가): ○○산의 생태적·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여 ○○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므로 ○○산 국립공원 지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0.① 21.④ 22.④ 23.②

5-(2)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1.② 2.① 3.④ 4.(1) 목적 : 수행 평가 과제 제출 시기의 분산하도록 설득하기 위함. (2) 예상독자 : 교장 선생님 (3) 주제 : 수행 평가 과제 제출 마감 시기를 분산하자. (4) 사회·문화적 상황 : 수행 평가 제출 시기가 몰려 있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5.② 6.③ 7.고치게 된 이유는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친 후에 내용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8.⑤ 9.⑤ 10.㉠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려고 함. ㉡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 휴지와 손 건조기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11.④ 12.④ 13.② 14.④ 15.(1)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2) 손수건을 사용하면 모든 자원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16.① 17.④ 18.① 19.① 20. '고치기 전'에는 사실만 제시되어 있으나 '고친 후'에는 사실을 얻게 된 출처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권리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6-(1) 가시리 / 진달래꽃

1.④ 2.④ 3.① 4.② 5.(1) 이별의 슬픔 (2) 이별의 정한 6.① 7.③ 8.③ 9.③ 10.④ 11.③ 12.'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각 연의 끝에 반복되어 운율을 살리고 구조적으로 통일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였던 '가시리'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고 나라가 태성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

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13.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는 표현상의 공통점이 있다. '진달래꽃'과 '뫼버들'은 화자의 분신, 사랑의 표상을 의미한다. 14.⑤ 15.① 16.③ 17.① 18.⑤ 19.내용상 이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궁중악으로 편입되어 전승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⑤ 21.⑤ 22.② 23.④ 24.⑤ 25.① 26.⑤ 27.② 28.④ 29.③ 30.⑤ 31.⑤ 32.③ 33.① 34.② 35.④ 36.㉠ 청룡 흑룡 ∨ 흠어져 ∨ 비 개인 ∨ 나루 ㉡ 가시리 ∨ 가시리 ∨ 잇고 37.③ 38.③ 39.① 40.⑤ 41.③ 42.③ 43.④ 44.②

6-(2) 상춘곡 / 울타리 밖

1.⑤ 2.① 3.④ 4.㉠공명과 부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중진미'와 '청풍명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연 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5.③ 6.④ 7.③ 8.⑤ 9.⑤ 10.⑤ 11.⑤ 12.② 13.③ 14.③ 15.④ 16. '훗튼 혜음'은 '헛된 생각'이라는 뜻으로, '공명'과 '부귀'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17.④ 18.④ 19.① 20.① 21.① 22.① 23.① 24.⑤ 25.② 26.① 27.③ 28.③ 29.② 30.④ 31.⑤ 32.③ 33.④ 34.① 35.① 36.(1) 꺼리고 : 씩우고 (2) 저녁에 : 나조히 (3) 생각 : 혜음 (4) 깨끗한 : 조흔 37.(가) 4음보 (나) 4음보 38.② 39.② 40.② 41.④ 42.① 43.화자는 깨끗하고도 변하지 않는 물과,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절개를 지키며 사는 삶을 추구한다. 44.① 45.② 46.④ 47.③ 48.⑤ 49.⑤ 50.④ 51.부귀, 공명, 훗튼 혜음

6-(3) 춘향전

1.④ 2.② 3.① 4.운율 형성, 장면 극대화, 편집자적 논평 5.① 6.④ 7.① 8.⑤ 9.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 10.② 11.⑤ 12.④ 13.③ 14.춘향과 몽룡의 재회 15.⑤ 16.⑤ 17.① 18.① 19.③ 20.고통 받는 백성과 춘향에게 환한 빛처럼 구원을 안겨줌. 21.③ 22.② 23.① 24.③ 25.적층 26.① 27.② 28.② 29.⑤ 30.③ 31.② 32.③ 33.④ 34.④ 35.③ 36.⑤ 37.④ 38.⑤ 39.④ 40.㉠: 편집자적 논평, ㉡: 반어적 41.① 42.② 43.② 44.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 45.③ 46.③ 47.① 48.⑤ 49.관탈 민녀 설화, 열녀 설화 50.④ 51.⑤ 52.④ 53.⑤ 54.표면적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면적 주제는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항거이다.

7-(1)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1.㉠ 2.㉠ 3.㉡ 4.㉢ 창의적 ㉣ 비관적 5.㉡ 6.㉢ 7.㉢
8.㉢ 9.㉢ 10.㉢ 11.㉢ 12.㉡ 13.㉢ 14.㉣기본 소득 도
입 ㉤낙관 15.㉣ 16.㉢ 17.㉡ 18.㉡ 19.㉡ 20.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21.㉣

8-(1) 세종어제훈민정음

1.㉡ 2.㉣ 3.㉠ 4.㉡ 5.㉢ ㉣ ㉤, ㉥, ㉦, ㉧, ㉨, ㉩ ㉪ ㉫,
-, | 6.이어적기(연철) 7.㉡ 8.㉡ 9.㉡ 10.㉢ 11.㉢
12.㉢ 13.윗글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하다'
는 현대 국어에서 '많다'의 의미이고, '하다'와 발음이
비슷한 '하다'는 현대 국어에서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인 현대 국어
의 '하다'와 같은 의미이다. 14.㉡ 15.㉣ 16.'爲'왕하
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
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國'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
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흙배'에서 보
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
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
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
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차, 스몯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
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 21.쉽게 익
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 23.㉣ : 성조를 표시하였다. ㉤ : 이어적기가 사
용되었다. 24.㉣ 25.㉢ 26.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
름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고, 백성
을 불쌍히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정신이 드러난다.
27.㉣, ㉣, ㉣, ㉣, ㉣, ㉣ 28.㉢ 29.㉣ 30.㉢ 31.㉡ 32.
㉠㉢ 33.㉠ 34.㉡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ㅕ, ㅗ, ㅛ' 따위의 음성 모음
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성
조 사라짐. ㉤ 'ㅓ'가 'ㅑ, ㅓ, ㅕ'로 변함. ㉥ 어두자음
군이 된소리로 변함. ㉦ 어리석은 ㉧ 불쌍히 46.㉡
47.㉣ 48.㉢ 49.㉣ 50.㉠ 51.㉡ 52.㉡ 53.나라말씀미
등귀에 달아 문짱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힐씨 54.어
린, 어엿비 55.㉡ 56.㉡ 57.㉠ 58.훈민정음에는 나라

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 우리 것이 필요하다는 '자주
정신',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
든 '창조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기에 편하게 만
들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나타난다. 59.8중성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0.초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ㅁ, ㅅ, ㅇ'을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ㅋ, ㅇ, ㄸ, ㅌ, ㅍ, ㅈ, ㅊ, ㅎ, ㄺ, ㅄ'를 만들
었다. 중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ㅇ, ㅑ, ㅓ'를 만들
었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를 만들었다. 중성은 중성부용초성에 의해 중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61.밍?노니 : 밍글- + -ㄴ- + -오- +
-니

8-(2)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동

1.㉡ 2.㉠ 3.㉣ 4.㉡ 5.㉡ 6.㉣ 7.㉢ 8.㉡ 9.㉣ 10.㉢의
'-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 12.㉡ 13.㉡ 14.㉡ 15.㉣ 16.㉡ 17.
㉠ 18.㉡ 19.㉡ 20.㉣ 21.㉢ 22.㉡ 23.㉡ 24.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
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입니다 → 3만원입
니다 25.㉠-시-, -있- ㉡ -이 26. 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 28.㉣ 29.㉠ 30.(1) 주체
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
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
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
32.㉡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
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
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
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 35.㉣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
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
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
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
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㉗-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㉘-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③ 60.⑤

9-(1) 토론과 논증 (2) 협상과 갈등 해결

1.④ 2.③ 3.② 4.⑤ 5.① 6.④ 7.② 8.⑤ 9.⑤ 10.① 11.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안내하였다. 12.조정단계, 최초 양보 점은 들꽃 축제의 차별화이고 최종 양보점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발생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13.④ 14.③ 15.④ 16.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신문 해 주십시오. 17.⑤ 18.④ 19.㉠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동물 실험의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이 있다. 20.③ 21.① 22.③ 23.② 24.[A] (1) 주장: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2) 이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근거: ㉠ 미국의 동물복지법,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 각 동물 실험 기관 내에 동물실험 감독위원회가 존재한다. [B] (1)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 (2) 동물 실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3) 근거: ㉠ 동물 실험의 성과에 대한 캘리포니아 생명 연구협회의 보고가 있다. ㉡ 인슐린, 소아마비 25.② 26.④

10-(1) 광야 / 신의 방

1.② 2.③ 3.③ 4.④ 5.④ 6.(1)는 (2)일제 강점기 7.⑤ 8.③ 9.'통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변소'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삶을 의미한다. 10.③ 11.④ 12.⑤ 13.④ 14.④ 15.② 16.③ 17.독립에 대한 자기희생적인 의지 18.③ 19.④ 20.④ 21.③ 22.④ 23.⑤ 24.⑤ 25.⑤ 26.시적화자는 자기희생의 태도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27.③ 28.④ 29.⑤ 30.② 31.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32.① 33.통시 / 사람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나 설거지물은 돼지에게 가고, 돼지가 이것을 먹어서 생긴 배설물은 보리밭으로 가고, 보리밭으로 간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보리의 양분이 되며 순환한다. 34.⑤ 35.④ 36.③ 37.③ 38.② 39.④ 40.⑤ 41.④ 42.④ 43.⑤ 44.① 45.① 46.④ 47.(가)의 '눈'과 '매화향기'는 서로 대조적

시어이다. (나)의 '흙'과 '시멘트'도 대조적 시어로, '통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순환하는 생태적 공간인 반면 '변소'는 '효율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둔 자연과 단절된 공간이다. 48.④ 49.② 50.② 51.③ 52.'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는 4연의 '노래의 씨'와 연결되어 화자가 미래의 후손 또는 미래의 지도자에게 부를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기반이 되겠다는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10-(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⑤ 2.⑤ 3.② 4.(1) ㉠ 고장 난 경운기 ㉡ 황만근가 (2) 이타적 삶의 자세,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의 자세,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자세 5.② 6.③ 7.(나)는 주로 대화로 민 씨와 이장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였고 (라)는 주로 요약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8.명약관화, 그 의미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9.⑤ 10.⑤ 11.② 12.② 13.⑤ 14.⑤ 15.[A]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을 예찬하였으나 [B]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16.③ 17.④ 18.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19.③ 20.① 21.④ 22.인물에 대한 행적이나 성품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평가를 드러내기 쉽다. 23.⑤ 24.① 25.⑤ 26.③ 27.② 28.③ 29.③ 30.⑤ 31.① 32.⑤ 33.인물의 죽음을 기리면서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34.㉠, ㉡, ㉢ 35.① 36.⑤ 37.③ 38.① 39.⑤ 40.⑤ 41.③ 42.② 43.② 44.⑤ 45.③ 46.① 47.(1)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 구요. (2) 자신의 실력에 따라 시험을 본 학생보다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들키지 않아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 48.② 49.② 50.③ 51.③ 52.③ 53.④ 54.③ 55.② 56.②

10-(3) 오해

1.② 2.④ 3.③ 4.① 5.고양이는 자유와 자존심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6.② 7.④ 8.② 9.③ 10.② 11.④ 12.⑤ 13.③ 14.② 15.② 16. ㉠고양이는 감사와 친애를 표시하러 온 것이다. ㉡새끼들을 행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

다. ㉔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17.① 18.㉔ : 자유 ㉔ : 자존심 19.② 20.⑤ 21.① 22.③ 23.④ 24.⑤ 25.③ 26.①

- 끝 -

5-(1)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

2.⑤

▶기자의 관점에 따라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

3.①

▶공공 이익이 아닌, 판매 목적의 상업 광고임.

4.②

- ① (나)는 문구를 활용하여 광고의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함.
- ③ (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후광의류를 입을 것을 권함.
- ④ (다)에서 우선으로 강조하는 건 후광의류를 입을 것을 권하는 것임.
- ⑤ (나)와 (다)는 문구를 통해 상품의 가치를 홍보한다.

5.⑤

▶달빛카드 사용으로 행복의 가치관을 정립해 주는 건 아님.

6.③

- ㉠ 옷의 실용성이 아닌, 이미지에 관심을 갖게 함.
- ㉡ 외면의 아름다움과 관련됨.

8.①

▶(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없음.

9.①

- ▶(가): 표는 없음.
- ③ (가): 국립 공원 지정을 선제 조건으로 도 관계자 말을 인용(“○○산이 국립 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연 자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도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하고 있다.

10.④

▶기자에 따라 관점이나 의도는 달라져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건 아님.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11.④

▶기자의 관점에 따라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

12.①

ㄹ: 전문가의 의견 인용은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전문가의 견해 인용→신뢰성 ↑

13.⑤

▶편집 방향에 따라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됨.

14.②

▶객관적 사실보다 의도에 초점을 두어야 함.

15.③

① 매체는 정보나 생각을 일방적 혹은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16.⑤

② ㉠ 배경은 없음.

17.①

▶전문가(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인용의 종류 (★★)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 (★)

- ㄱ.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상식적)
- ㄷ.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18.①

▶(나)에는 관계자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이 인용됨.

20.①

- ㄴ: 옷을 바꾸라는 바를 소비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건 아님.
- ㄹ: 자기 계발과 관련된 것은 없음, ㅁ: 옷을 새로 바꾸는 것임.

21.④

▶(다)는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노동자들(윤 모 씨, 김

모 씨)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22.④

▶같은 사건이나 주제를 다룰 때에도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에 사실 그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음.

23.②

▶육하원칙은 기사문과 관련됨.

5-(2)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1.②

▶글쓰이의 설문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든 것이 아님.

2.①

▶(A)는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이며 ①이 <보기>와 직접 관련됨.

3.④

▶④는 ‘윤리적인 글쓰기 태도’가 아니라, 글의 특성에 따른 글쓰기 태도임.

5.②

▶관용적 표현은 없음.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 습니까?”는 광고 문구임.

6.③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로 습관을 당장 바꾸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음.

8.⑤

ㄴ: 상징적 표현은 없음.

9.⑤

▶손수건을 사용함으로써 자원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므로 ⑤가 가장 적절함.

11.④

▶<많은 사람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손 건조기를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를 통해 알 수 있음.

12.④

▶4모듬 : 현재는 손수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 상황임.

13.②

▶ㄱ: 이 정도면 거의 100%지, ㄷ: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고 써야지, ㄴ: 내 글의 제목도 이걸로 사용해야겠어. ㄹ: 약간 도움 되는 한 문장만 따 와서 쓴 건데, 뭐.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인용의 종류 (★★)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14.④

▶손수건 사용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사례 vs 예시 (★)

- ㄱ.사례(실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ㄴ.예시: 예를 들어 보임.
- 사례와 예시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나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에 꼭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6.①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원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님.

17.④

▶전문가의 주장 인용은 두 번째 근거에 있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 (★)

- ㄱ.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상식적)
- ㄷ.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18.①

▶실태 조사의 주체가 제시된 건 아님.

6-(1) 가시리 / 진달래꽃

1.④

▶ ‘설운’의 주체가 ‘임’일 경우, 화자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건 아님.

▶ 응, 헛갈리지 마! ◀

모호(애매) vs 중의 vs 모순 (★★)

- *모호(애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2.④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를 통해 알 수 있음.

① (각 연의 1행: 2음보, 2행: 1음보, 3행: 3음보) 등 호흡의 속도가 달라 동일한 호흡이라 볼 수 없음.

▶ 응, 헛갈리지 마! ◀

자조 vs 체념 vs 한탄 (★)

- *자조: 자기를 비웃음.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여성적 어조(★):

작가의 정서적 태도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간절한 바람이나 한, 애상감 따위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조

3.①

▶ ㄹ. 구전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것임. ㄴ. 평민층의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3음보 vs 4음보

- ㄱ. 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 ㄴ. 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4.②

▶ (가)에서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가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관련됨.

6.①

▶ 음보율은 일정한 구절을 단위로 하여 끊어 읽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 응, 헛갈리지 마! ◀

음수 vs 음보

- ㄱ. 음수: 글자 수
- ㄴ. 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7.③

▶ ㉔ ‘나’는 짧게 낭독함. ㉕ (나) 2연은 ‘날리는 V 었디 V 살라 흐고’로 (다)는 ‘말없이 V 고이 보내 V 드리우리다.’로 끊어 읽는 것은 통사적 의미 단위가 아닌, 어휘적 의미 기준임.

9.③

▶ (나)에는 재회를 기원하지만 <보기>엔 임의 소식마저 그친 상황이 나타나 있기에 ㉓이 가장 적절함.

<규원가>

- *주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원한과 한탄
- *해제: 이 작품은 소식마저 끊어진 채 밖으로만 다니는 남편을 그리움과 원망 속에서 기다리는 한 여인의 한과 슬픔, 운명론적 체념을 그리고 있다. 섬세하고 애절한 서정을 그리움과 슬픔으로 표출하면서 여성의 한스러움을 부각시키는 한편, 온화하고 품격이 높은 시풍으로 작품의 시적 감각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ㅎ여라.’라는 낙구는 임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10.④

▶ ㉔의 ‘-우리다’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순종과 체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11.③

▶ 역설이 아닌, 반어적 표현임.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반어법 vs 역설법 (★★★)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도치법:

-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14.⑤

▶ (다)는 봄날의 애상감을 나타냄.

17.①

▶ (나)는 화자의 속마음을 승화 혹은 절제하여 나타내는 것이지, 진솔하게 드러내는 건 아님.

18.⑤

▶ 1연만이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며 4연은 슬픔의 정서가 강화됨.

▶ 응, 헛갈리지 마! ◀

유사한 어구 vs 동일한 어구

- ㄱ. 유사한 어구: 서로 닮은꼴.
- ㄴ. 동일한 어구: 완전히 똑같음.

자조 vs 체념 vs 한탄 (★)

- *자조: 자기를 비웃음.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20.⑤

▶후렴구는 흥을 돋기 위한 것으로 본시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건 아님.

22.②

▶2연에서는 떠나는 입에 대한 축원을 나타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대립적 전개
-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23.④

▶D는 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며 (마)의 ⑤의 마음과 가장 유사함.

24.⑤

▶(나)와 (마)의 화자 둘 다, 이별 상황을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건 아님.

25.①

▶<보기>는 정형시이지만, (나)는 자유시로써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가 갈래이다.

<어저 내 일이야>

-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 *해제: 자존심과 연정의 사이에서 겪는 오묘한 심리적 갈등이 우리말로 절묘하게 표현된 작품으로 입을 떠나 보낸 후의 회한(悔恨)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애절한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정결하게 표현하였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약한 서정적 자아의 마음이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황진이 시조는 기녀(妓女)들의 시조가 애정을 노래함으로써 시조의 영역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기교까지 고도로 세련되었음을 말해 준다. 초창의 '어저'라는 감탄사는 소박한 탄성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그리움에 대한 인식이 내포된 것이고, '저 구태여' 같은 경우도 의미의 함축성을 극대화한 좋은 예이다. 이 외에도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 시간을 공간으로 치환시키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철학) 관련 어휘 맥락

-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 도교적: 자연친화, 신선사상, 옥황상제, 초현실적...

26.⑤

▶<보기>는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냄.

27.②

▶⑥는 '잡아 두고 싶지만'의 의미임.

28.④

▶(가)의 '나'와 <보기>의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후렴구로 음악적 효과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청산별곡>

- *주제: 생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인의 비애, 입을 잃은 여인의 처절한 삶과 입을 향한 그리움
- *해제: 작자와 창작 연대는 알 수 없고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된 이 노래는, 고려 속요 중 '서경별곡', '가시리'와 함께 비유성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혀 왔다. 이 노래는 고려 시대 사람들의 자연애(自然愛), 현실도피, 은둔 사상, 취락사상(醉樂思想), 낙천성(樂天性) 등 후대 국문학의 주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등, 그 시대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동경과 시름의 하소연이 매우 진솔하고도 절실하게 표출되어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3음보 vs 4음보

- ㄱ.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 ㄴ.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9.③

▶③도 (나)와 같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함.

◆주제 저장소◆

- ① <청산(靑山)도 절로절로>: 무위 자연의 조화로운 삶
- ② <동기(同氣)로 세 몸 되어>: 아우들과 헤어진 서글픈 심정
- ③ <송인>: 이별의 슬픔
- ④ <산거>: 적적하고 고요한 심정
- ⑤ <절명시>: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고뇌

30.⑤

▶ㄱ.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반어임. ㄷ. 4연에서는 슬픔을 참으려는 화자의 적극적 심리가, 1연에서는 이별의 상황에 체념하는 화자의 소극적 심리가 드러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